

성찬식에 대한 예수님 말씀

작성일 : 2009. 11. 08. (토)

작성자 : 주혜인 목사

11/7 금요 성령 집회 때

기도하다가 두 가지 이상을 보았습니다.

하나님께서는 흰 세마포 옷 대신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.

늘 입으시던 흰 세마포 옷이 아닌 오늘은 왜 붉은 옷을 입으셨냐고 여쭙어보니 성찬식을 위해 입으신 옷이라고 하셨습니다.

또 하나의 이상은 제가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, 온 손에 피를 묻히고 저의 드레스도 온통 피로 물들었고, 저의 신랑인 예수님의 주검을 끌어 안고 통곡하는 모습이었습니다.

그 모습이 너무 슬퍼 한없이 울면서 기도하며 들린 음성을 새벽에 다시 기도하며 적게 되었습니다.

* 예수님 말씀 *

금강아!! 내 사랑 금강아!!

나 너의 신랑 예수다.

오늘 마음이 많이 아팠느냐?

내 성찬식 의미 되새기며 많이 생각했느냐.

오, 내 사랑아.

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간구하였느냐.

나는 너를 위해 피와 살을 내어주었다.

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인 것, 너는 몰랐지?

네 가슴 찢으며 우는 모습 보았다.

내 사랑, 네가 우니 나도 슬펐다.

나, 너로 인해 죽은 것 맞노라.

내 사랑. 나의 시신 안고 울었느냐~

내가 혼인잔치 위해 2000년 만에 온 지구촌,

또 다시 성찬식 하게 되니, 내 가슴 무너진다.

내 사랑하는 선생만은 그 길 보내지 않으려 했는데,

또 시대가 나의 살과 피를 원하는구나.

이젠 그가 나를 대신해 그 살과 피를 내어준다.

내 사랑아~.

내가 정녕 내어준 살과 피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.

내 혼인 잔치,

내 사랑하는 신부 위해 나는 이 세상 다시 죽노라.
내 사랑 신부여.
네 웨딩드레스 피로 물들고, 네 손에 묻은 피는 나의 피다.
나의 혼인 잔치, 나의 장례식 되었구나.
이 지구촌 기쁨과 환희의 잔치가 애통과 곡으로 바뀌었구나.
오, 슬퍼마라, 나의 신부들아.
나는 너희 위해 죽었으나, 너희 생명 살리니 기쁘도다.
내 사랑들아.
너희가 마음 돌이켜 나를 다시 사랑해주고,
나를 위해 울어준다면 나는 너무 기쁘겠구나.
그러나 내 사랑아.
우리 슬픈 역사 이제 그만하고 싶은 내 심정 아느냐.
이제는 이 땅, 나 맞을 신부들과 하늘 기쁨의 세계 누리며 지상천국 이루려 했던 그 뜻을,
내 아버지 뜻을 이루고 싶구나.

나의 신부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맞는 그 성찬식,
내가 보고 싶구나.
오, 나의 사랑 섭리사 신부들아. 단장한 너희들이여~.
나를 향한 그 신부단장 끝났느냐.
나의 기다림 애가 타는 구나. 해가 서산 넘어간다.
어서 서둘러라.
내 신부여~.

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노라.
이제 이 역사 내가 하늘 아버지께 자랑하며,
내 사랑하는 신부들 어서 소개하고 싶구나!
회개하여 깨끗한 옷 입은 자들아.
기쁨으로 너희 길 예비하라. 내 아버지 나라 다 준비되었다.
오, 사랑들아~
이 시대 가운데 진정 사랑으로
나의 성찬식 거룩하게 준비하는 곳, 이곳 섭리사 뿐이로다.
오 내 사랑들아.
누가 그토록 진실 되게 기준과 조건을 세워 왔느냐.
누가 나의 상처 싸매어 나의 아픔 위로 하였느냐.
나는 30년간 그 사랑, 위로 받아 기쁘고 또 흡족하였다.
그 사랑, 위로 내게 준 곳, 섭리사였다.
오, 내 사랑들아~
나는 오늘 기쁘구나.

오늘 이 아이에게 나타난 바대로,
나는 붉은 옷 갈아 입고 나의 성찬식, 내 사랑하는 신부들,
나를 맞아주는 곳으로 가겠노라.
나의 살과 피 헛되게 하지 말고,
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맞아라.

사랑의 역사 폭발하는 시간 될 것이다.
나의 사랑들아.

나의 붉은 옷, 이제 너희가 희게 바꾸어다오.
나는 진정코 기쁨의 옷 입고 싶구나. 내 살과 피로 살린
너희가, 이젠 나를 다시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.
시대 십자가, 너희 손으로 사랑하는 나의 몸 내려다오.
너희 스승의 그 십자가 또한 내려다오.
내 하늘 아버지 원한 풀어다오.
나는 매일 매일 죽노라.
지구촌 사랑하는 자들 쳐다보며 그를 위해 매일 죽노라.
내 사랑 이제 열매 맺고,
그 사랑 꽃 피워 지구촌,
내 아버지께 영광 돌려 보자꾸나.

나의 신부들아.
자, 이제 그 마음 일으켜 내게 사랑고백 하고,
너희 마음 온전히 내게 향해다오.
2천년, 아닌 6천년 원한 꿈 풀어보자꾸나.
마지막 역사,
이제 놓쳐서는 안 되노라.
내 신부들아.
그 사랑 더, 더, 내게 다오.
내게로 다오!!!

11/7 새벽 1:03